creative commons
COMMONS DEED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dCollection

권 기 범 교수지도

석사학위 청구논문

기억 속 이미지를 통한
추상적 표현 회화연구

– 본인의 작품 중심으로 –

2019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동양화과

원 나 래

기억 속 이미지를 통한
추상적 표현 회화연구

- 본인의 작품 중심으로 -

권 기 범 교수지도

이 논문을 석사학위 논문으로 제출함

2019년 5월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동양화과
원 나 래

인 준 서

원나래의 석사학위 논문으로 인준함

2019년 5월

심사위원장 ..... (서명 또는 인)

심 사 위 원 ..... (서명 또는 인)

심 사 위 원 ..... (서명 또는 인)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논 문 개 요

본 논문은 본인의 삶에서 경험한 사사로운 사건 사고에 비롯된 기억들에 관한 관심과 관찰로 시작되었으며, 이를 주제와 소재로 삼아 추상적인 이미지로 시각화한 작품에 관한 연구이다.

인간 개개인은 삶 속에서 어떠한 태도나 의식, 가치관, 그리고 정체성을 갖추고 있다. 그리고 삶 속에서 하나의 상황을 마주하게 될 때, 자신이 갖추고 있는 것들에 의한 해석과 결론을 만들게 된다. 이에 비롯한 경험은 삶 속에 축적되고, 이따금 상황을 마주하는 법은 충돌하고 변화하여 다른 태도를 취하기도 한다. 본인은 삶의 단편적인 기억들 중 본인의 태도와 가치관에 변화를 가지게 되는 계기와 순간에 집중하게 되었다. 변화를 야기하는 계기는 단순히 회상하는 기억에 그치지 않고, 나아가 당시의 감정을 상기시킨다. 보통은 본인에게 강한 인상으로 남아 시간이 지나도 삶 속에 잔재로 남거나 지대한 영향을 미친 기억들인데, 이 기억들은 본인이 가진 사고, 행동, 관점, 태도와 같은 것들이 기존의 모습에서 변화를 야기하는 것들이었다.

작업은 본인에게 강렬한 인상을 주었던 순간과 상황을 나타내고, 이는 부정확하고 비정형의 이미지로 재현되고 있다. 작업에서 화면은 사건을 통해 발생한 이야기의 공간으로 관망하고, 기억에 등장하는 요소들은 본인의 조형언어로 치환하여 화면 안에서 불분명하게 조합해간다. 또한 이러한 사건 사고를 이미지로 만들어가면서 일차적으로 기록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그것들과 유기적인 관계를 맺는 것들 그리고 파생되어 다른 방향으로 확장하고 변화되는 것들까지 관찰하고 있다.

본 논문은 기억을 이미지로 기록하는 방법에 대한 연구를 바탕으로, 본인의 자아를 형성하고 변화하는 것에 대한 지각과 계기를 발견하고자 한다. 삶으로 들어가 이를 이미지로써 기록하고 이해하며 이것들이 지니는 가치를 돌아보려 한다. 또한 본 논문의 작업은 본인의 삶 속에서 강한 인상으로 남은 기억들을 되짚어보며, 기억을 가시적으로 나타내고, 비정형의 형태로 표현하는 것에 집중하였다. 추상적 이미지화 하는 과정에서 본인 작업의 고유성을 모색하고 각각의 조형적 표현과 기법들이 의미하는 바를 찾아가며, 이를 감각적이고 미적인 방법으로 나타내는 데 중점을 두었다.

목 차

논문개요

Ⅰ. 서론 ····· 1

Ⅱ. 본론

1. 기억과 형상

1) 기억에서 비롯된 자기반성과 성찰 ····· 3

2) 드로잉을 통한 심상의 형상화 ····· 7

2. 본인작품해석

1) Samsara ····· 12

2) 요람으로 쓰러지는 법 ····· 28

Ⅲ. 결론 ····· 40

참고문헌

ABSTRACT

작 품 목 차

【작품 1】 Samsara Drawing, 14.8x21cm, 종이에 혼합재료, 2012 ····· 15

【작품 2】 Samsara Installation Artwork, 2012 ····· 15

【작품 3】 Samsara I, 60.6x72.7cm, 종이에 혼합재료, 2013 ····· 16

【작품 4】 Samsara II, 120x120cm, 종이에 혼합재료, 2013 ····· 17

【작품 5】 Samsara III, 24.2x33.4cm, 종이에 혼합재료, 2014 ····· 19

【작품 6】 윤회하는 정원 I, 60.6x72.7cm, 종이에 혼합재료, 2015 ····· 21

【작품 7】 윤회하는 정원 II, 60.6x72.7cm, 종이에 혼합재료, 2015 ····· 21

【작품 8】 눈이 내리고 그 눈이 녹았던 날, 26x36cm, 종이에 혼합재료, 2016 ····· 23

【작품 9】 그 날, 너가 물가를 향해 던진 돌은 사실 바위였다, 26x36cm, 종이에 혼합재료, 2016 ····· 24

【작품 10】 요즘 공기 중에 떠도는 것들, 26x36cm, 종이에 혼합재료, 2016 ····· 24

【작품 11】 생리통, 97x130,3cm, 종이에 혼합재료, 2018 ····· 26

【작품 12】 붉은 파도, 22.7x15.8cm, 종이에 혼합재료, 2018 ····· 27

【작품 13】 시금치죽, 45.5x37.9cm, 화판에 혼합재료, 2017 ····· 30

【작품 14】 상추밭 토끼, 32x24cm, 종이에 혼합재료, 2018 ····· 30

【작품 15】 무반응, 45.5x37.9cm, 화판에 혼합재료, 2017 ····· 32

【작품 16】 네모가 머무는 곳, 130,3x162.2cm, 종이에 혼합재료,
2018 ····· 34

【작품 17】 액자를 마주하며, 독백, 72.7x90.9cm, 화판에 혼합재료,
2017 ····· 35

【작품 18】 가벼워 자꾸만 떠오르는 것들, 24x32cm, 종이에 혼합재료,
2018 ····· 36

【작품 19】 요람으로 쓰러지는 법 I, 130.3x162.2cm, 종이에 혼합재료,
2018 ····· 38

【작품 20】 요람으로 쓰러지는 법 II, 22.7x15.8cm, 종이에 혼합재료,
2018 ····· 39

도 판 목 록

【작품 1】 사이 톰블리(Cy Twombly), Apollo and the Artist, 141.9x127.5cm, 종이에 혼합재료, 1975

【작품 2】 루치오 폰타나(Lucio Fontana), CONCETTO SPAZIALE, ATTESE 73x92cm, 캔버스에 혼합재료, 1965

【작품 3】 루치오 폰타나(Lucio Fontana), CONCETTO SPAZIALE (Spatial Concept), 100x100cm, 종이에 혼합재료, 1949

I. 서 론

본 논문은 본인이 삶에서 겪었던 경험 중 살아가는데 어떤 태도나 의식에 영향을 미쳤던 순간과 기억들을 재생하며 이미지로 기록하고, 이를 비정형의 이미지로 표현하는 것에 의미를 두고 있다. 이는 단순히 지난 한 시점을 추억으로 되새기는 행위에 그치지 않고, 당시의 상황을 마주한 본인의 태도나 의식을 고민하게 한다. 그리고 그에 비롯된 결정의 옳고 그름을 구별하고, 삶을 바라보는 시야를 넓히고자 하는 자기반성의 시간을 갖고자 하는 것이다.

이렇게 자기반성을 하게끔 하는 상황들은 대체로 긴 여운을 갖게 하는, 쉽게 잊지 못하는 기억들이었다. 대체로 본인에게는 비극적인 사건 사고였다. 이러한 상황들을 마주하던 순간에는 부정적인 감정에 지배되어 있었지만, 사건이 마무리되고 본인이 그 상황을 제대로 보게 되는 때에 늘 자기반성도 함께 하게 되었다. 그 시간은 대체로 주어진 상황을 좀 더 넓고 멀리 내다볼 수 있게 하는 깨우침과 배움의 순간이었다.

그림을 그리는 것은 본인이 떠안은 것들을 하나하나 정리해가는 과정이고, 그 과정을 거친 작품은 당시의 감정을 쏟아내던 창구이기도 하였다. 비정형의 추상적인 이미지는 관람자의 입장에서는 한눈에 읽히지는 않기에, 본인이 작품에 임할 때 좀 더 진솔한 태도일 수 있었다. 스스로 묻고 답하며 이해하는 과정으로 이를 표현할 수 있는 이미지를 연상하고, 다양한 표현 방법들을 연구해갔다.

본 논문은 본인의 작품 분석과 함께 본인에게 의미 되는 기억의 내용을 먼저 연구하고, 본인이 작품에서 나타낸 형상 표현에 대해 알아본 다음, 본인의 작품 분석으로 진행된다.

본론 1에서는, 본인에게 의미 되는 기억에 대한 정의와 기억, 그리고 기억의 이미지화에 의한 형상 표현에 대해 이야기를 하고자 한다.

본론 2에서는 본인의 작품 해석을 통해 작품의 내용과 형상 표현의 방법에 관해 설명한다. 2-1인 <Samsara>와 2-2인 <요람으로 쓰러지는 법>으로 나누어 각 주제의 작업 동기와 배경에 관한 이야기를 언급하고, 작업을 진행한 과정과 이미지의 표현방식에 대해 다루고자 한다.

II. 본 론

1. 기억과 형상

1) 기억에서 비롯된 자기반성과 성찰

기억은 사전적 의미로 이전의 인상이나 경험을 의식 속에 간직하거나 다시 생각해 내는 것을 말한다. 특히 심리학의 영역에서 본인에게 의미하는 기억의 형태를 찾아볼 수 있는데, 이는 '일화 기억[1)]'과 '섬광 기억[2)]'이다. 기억 중 특정한 시간과 장소에서 발생했던 개인의 과거 경험들의 집합을 '일화 기억'이라고 일컫는다. 이 일화 기억은 우리 자신을 과거로 보내고, 우리에게 일어났던 사건들을 재방문하게 하면서 '마음의 시간 여행'을 할 수 있게 하는 형태의 기억이다. 이 능력은 과거와 현재를 연결하며, 특정 이미지나 경험을 자의식 속에 담아냄과 그것을 다시 회상함으로써 본인의 내면에 경험을 축적하게 한다.
'일화 기억'과 연결 지어 설명할 수 있는 '섬광 기억'은 한 사건에 대해 떠올렸을 때 언제, 어디에 있었는가에 대해 상세하게 떠올릴 수 있는 기억을 말한다. 여러 연구는 이 섬광 기억이 항상 완전히 정확한 것은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같은 시기의 일상적인 사건보다 더 잘 기억된다는 결론을 도출했다. 또한 섬광 기억에 대해 이는 이 기억의 정서 반응이 기억에 영향을 미친다고 말한다.

---

1) Daniel L. Schacter, 『심리학개론』, (시그마프레스. 2016) p.235
2) 위의 책, p.255

본인의 기억은 일화 기억과 섬광 기억의 특징을 함께 가지고 있다. 시간이 지나도 삶 속에 잔재로 남은 과거의 기억은 본인이 가진 태도나 의식, 가치관, 정체성이 변화하는 데 영향을 미친다. 과거의 시점이 지난 현재의 본인은 이후에 비슷한 상황이 주어질 때, 어떤 태도로 삶을 마주해야 하는지에 대한 고민을 하게 한다. 그것은 본인이 삶의 풍경을 올바른 시각으로 바라보고 해석하는지 스스로 묻고 답하며, 이를 바라보는 시야의 범위를 확장하는 계기로 이어간다. 자신의 부족함에서 채워야 할 것들을 발견하고, 이러한 성찰을 통해 자아를 더 밀도 있고 단단하게 하는 기회로 만드는 것이다. 쉽게 잊지 못하는 과거 사건·사고의 기억에서 현재의 자신과 대치하여 보는 것은 과거 기억 속의 자신이었다. 본인을 객관적으로 보기 위한 준비이자 성찰의 기회였다. 이러한 성찰의 계기가 되는 기억들은 본인이 그저 지나치게 되는 일상적인 부분에 그치지 않기에 다른 기억들과 달리 선명하고 뚜렷하게 떠올릴 수 있으며, 본인에게는 일화 기억과 섬광 기억과 같은 특징을 가진 채로 남아있는 것들이다.

본인에게 이와 같은 기억은 일화 기억과 섬광 기억의 특징과 함께, 집착의 특징을 갖고 있다. 심리학에서 '집착'은 우리가 잊고 싶어 하는 사건에 대한 침투적인 기억[3]을 의미한다. 침투적 기억은 정서적 경험에 비롯되어 비정서적인 경험에서, 더욱더 생생하고 지속적인 회상을 초래한다. 시간이 지나도 잊히지 않는 기억들은 성찰의 계기로 삼는 것과 함께 특별한 기억으로 여기며, 집착의 의미를 부여하게 되었다. 일상적이고 보편적이어서 그 존재감조차 느끼기 어려운 기억과는 달리 늘 삶 속에 머물러 있고, 단순히 머릿속에 저장된 기억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본인을 되돌아보는 계기로 삼게 되었으며, 비가시적인 기억을 어떠한 형태를 가진 기록으로 남기고자 하면서 작업의 발단으로 이어지게 된다.

3) 위의 책, p.254

본인의 삶에서 늘 관심을 가지고 주의 깊게 지켜보는 기억이 있다면 본인의 삶에 꾸준한 영향을 미치는 것들이었고, 단발성이 아닌 지속성을 가진 것들이었다. 대부분은 본인에게서 혹은 가까운 주변에서 일어난 사건 사고들이었고, 본인과 상관관계를 맺게 되는 것들이라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게 되는 것이 자연스러웠다. 보통은 이러한 상황들은 본인의 부족한 지행에서 '문제'로 삼게 되는 것들이었고, 당시 갖추고 있던 의식이나 태도에서 변화를 가져야 하는 필요성을 느끼게 했다.

이러한 인식은 스스로 '내가 그 상황에서 어떤 말과 행동을 갖춰야 했을까. 이렇게 했더라면 지금 더 나아질 수 있었을까?'라는 고민으로 나아가게 하고, 이를 곱씹는 것을 반복하며 당시의 본인에 대한 자기반성과 자아 성찰을 하게 된다. 상황을 단순하게 혹은 무심하게 보기보다는, 마음에서 일어나는 여러 감정을 분석하여 원인을 찾는 것이다. 자신을 되돌아보는 시간을 충분히 가진 후에는 인정하게 힘들었던 과거 본인의 모습을 받아들이게 되고, 성찰의 표본으로 삼아 좀 더 나은 사람이 될 수 있게끔 했다. 결국 이 시간은 스스로가 반성과 성장을 자력으로 일궈갈 수 있게 하는 수련의 시간이다.

본인이 주된 의미를 갖는 기억과 그에 비롯된 태도는 종교에서 의미하는 바에서도 닮은 점을 찾아볼 수 있었다. 기억[4]은 한번 깨닫거나 경험한 사건, 사물 등을 잊지 않고 재생하는 작용인데, 성경에서는 단지 기억을 되살리는 정도가 아니라 자신의 허물을 깨닫고 삶을 변화(회복)시키는 것까지를 포함한다. 기억을 대하는 자기반성, 자아 성찰적 태도는 불교에서도 찾아볼 수 있었다. 불교에서 절을 하는 행위[5]는 몸과 마음에 대한 집착을 내려놓고 깨달은 자의 지위에 도달하고자 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

---

4) 잊지 않고 외워둠. 한번 깨달았거나 경험한 사건이나 사물 등을 잊지 않고 재생하는 작용(신 30:1). 성경에서는 단지 기억을 되살리는 정도가 아니라 자신의 허물을 깨닫고 삶을 변화(회복)시키는 것까지를 포함한다. (라이프성경사전, 생명의 말씀사, 2006, 네이버지식백과사전))

5) 한국불교대표방송BTN, 『불교에서 '절'을 하는 이유』, (한국불교 대표방송 BTN, 2019, https://blog.naver.com/btnii)

따라서 본인에게 잊지 못할 기억을 떠올린다는 것은 단순히 회상의 의미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반성과 성찰을 통해 깨달음을 얻는 계기이다. 작품의 과정에서는 이러한 기억 속 이미지를 어떻게 시각화할 것인가, 화면에 등장하는 조형적 요소들은 어떤 의미를 가질 수 있을 것인가, 어떠한 표현 기법과 물성의 특징이 본인의 이야기에 부합할 것이고, 작품에서는 당위성을 가질 것인가이다. 그림의 내용은 기억에 대해 느낀 당시의 마음과 감정에서 만들어진 형태들이고, 각각이 의미를 가진 것들의 종합체이다. 결국 작업에 있어 작품과 본인의 기억, 그리고 그에 비롯한 본인까지 모두 불가분의 관계를 맺고 있다.

2) 드로잉을 통한 심상의 형상화

'형상[6]'은 오관에 의해 지각되지 않더라도, 감각적, 직관적인 존재로 의미한다. 개념적 사고에 의해 파악되는 것이 아니며 감각에 나타나는 상(象)으로 표현되기에, 일반적으로 예술을 성립시키는데 기초가 되는 요소로 말한다.

그 외에 형상은 관념과 동의어인 '심상'으로도 의미한다. 심상은 의식 속에 외적 자극을 직접적으로 받지 않고 떠오른 감각적인 상을 말한다. 본인이 작업 하는 과정에서 주로 작용하는 심상은, 잠재된 감각적인 인상을 표출시켜 미적 형상을 만들어내므로 드러난다. 심상은 대상에 대해 유발된 내적 표상이며, 모든 예술작품은 심상을 구체화한 대상이 된다.[7] 이러한 심상은 예술가에게 개인적이고 주관적이어서 외부의 제재를 받지 않기에, 본인의 감정과 정서에서 자유로울 수 있다. 본인 역시 기억에 비롯한 심상을 시각적으로 형상화하여, 비정형의 이미지로 구현하고 있다. 비정형의 이미지는 어떠한 규칙과 제약이 정해져 있지 않는다. 그러기에 본인이 작업에서 집중하는 부분은 마음에 그려지는 형상을 불분명한 형태와 자유로운 표현기법으로 나타내는 것이다. 이는 본인의 감정과 정서뿐만 아니라, 완성된 이미지 역시 동일한 성격을 가지는 결과를 만든다.

작품에서 보이는 이미지의 형상들은 비정형의 불규칙한 조형 요소들의 조합으로, 드로잉의 성격을 띠고 있다. 드로잉은 주로 선으로 그리는 회화표현

---

6) 이 말은 대개 예술적 형상이라는 의미로 사용된다. 예술이 인물이나 사건, 정경을 포착하거나 표현하는 데에는 논리적으로 개념을 사용하는 추상적、일반적인 방식이 아닌 구체적、개별적인 방식으로 행한다. 즉 사람들의 감각에 나타나는 상(象)으로 표현되며, 더구나 그 상에서 표현된 것이 단지 그것만으로 그치지 않고 일반적인 것, 전반적인 것을 포함하는 것으로서 표현된다. 그것은 동시에 단순히 지적으로 보여지는 상이 아니라, 감각적 측면도 들어있다. 이와 같이 예술적으로 표현된 것을 형상이라 부른다.
또한 그 외에 형상은 심상(心象)이라는 말로도 나타내, 일반적으로 의식 속에 외적 자극을 직접 받지 않고 떠오른 감각적인 상을 말한다. 넓게는 외적 자극에 의해 얻어진 감각적 상을 포함하기도 한다. (철학사전, 중원문화, 2009 (네이버지식백과사전))

7) 심상이란 외부의 사물들을 마치 그림이나 사진처럼 기억에 표상해 둔 것이다. 대상 물체에 대해 유발된 내적 표상 중 그 대상에 상응하는 구체적 구조적 동일성을 가진 표상이다. 모든 예술작품은 심상을 구체화한 대상이다. 루돌프 아른하임, 『시각적사고』, 김정오(역), (서울: 이화여자대학교 출판부, 1991), p.44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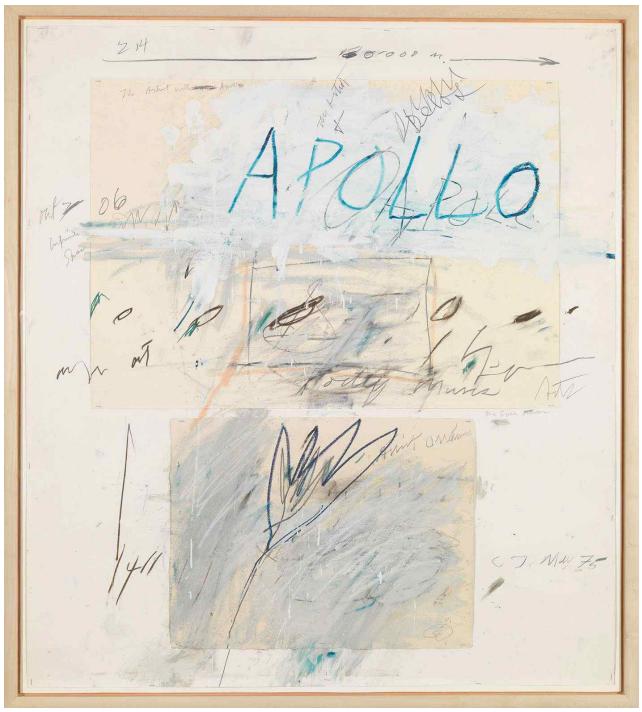
으로 작가의 표현 동기를 기록하거나 어떤 그림의 예비적 습작이나 밑그림의 역할을 하며, 본격적인 회화작품을 제작하기 위한 예비 단계나 그 과정으로 이해되어왔다. 그러나 현대에서는 작가의 시각과 묘법의 다양성이 그 작가의 생각이나 느낌 또는 이상을 순수하고 자유롭게, 직접적으로 표현하는 가장 원초적인 방법으로 이해하여 하나의 독립된 회화 표현 예술로서 여겨지고 있다. 어떠한 규칙이나 제약 없이 그리는 행위에 의한 그림이기에 우연적인 형태를 만들 수 있는 게 특징이다.[8)]

본인은 이러한 드로잉의 의의를 사이 톰블리(Cy twombly)의 작업과 루치오 폰타나(Lucio Fontana)의 작업에서 발견하고, 본인 작업과의 유사성과 연관을 찾게 되었다. 사이 톰블리는 고대 신화와 시, 역사에 영감을 받아 서툰 느낌으로 쓰여진 문자와 기호, 즉흥적으로 휘갈긴 듯한 선들의 조합, 즉흥적으로 물감을 바르는 채색법과 마티에르 조합으로 화면을 구성하고 있다. 작가는 이러한 표현 기법을 중점으로 정형화된 이미지에서 벗어나 표현과 감각, 형상성에 집중하고 있다.[9)] 본인과 사이 톰블리의 작품에서 찾을 수 있는 유사한 부분은 즉흥성이 갖는 불규칙성과 우연성이라는 특징, 이것들이 만들어낸 자유로움이라는 성격, 재료의 물성을 드러내는 마티에르와 콜라주를 이용한 표현기법이다.

---

8) 소묘는 일찍부터 화가의 표현동기를 기록하거나 어떤 그림의 예비적 습작이나 밑그림으로서의 미되며, 본격적인 회화작품 제작을 위한 예비적 단계의 그림이나 그 과정으로 이해되어 왔다. 그러나 오늘날에는 화가의 생각이나 느낌 또는 이상을 순수하고 자유롭게 직접적으로 표현하는 가장 원초적인 방법이라고 이해하게 되어, 소묘는 하나의 독립된 회화표현 예술로서 가능성이 새롭게 탐구되고 있다. (두산백과, 두산백과, 1989 (네이버지식백과사전))

9) 사이 톰블리(Cy Twombly, 1928~2011) 미국의 추상주의 화가. 그림과 낙서, 드로잉을 장난스럽게 결합하는 독창적인 양식을 선보였다. 특유의 선묘와 상징적인 기호들, 서투른 글자체와 숫자 등이 어우러지며 때로는 서정적인 아름다움으로, 때로는 폭발할 것 같은 강렬함으로 색다른 시각적 경험을 가능하게 한다. 톰블리는 그림과 낙서, 드로잉을 장난스럽게 결합하는 양식을 선보였다. 그는 매체들 간의 경계를 흐릿하게 하며 색다른 시각적. 예술적 경험을 선사하였다. 유럽 지중해의 오래된 건축과 신화의 이미지를 특유의 선묘와 상징적인 기호로 풀어내 서정적이며 직관적인 것이 특징이다. 휘갈겨 쓴 서체의 흔적들은 초현실주의의 자동기술법을 연상시키며 폭발할 듯한 강한 에너지를 표현하고 있다. (두산백과, 두산백과, 1989 (네이버지식백과사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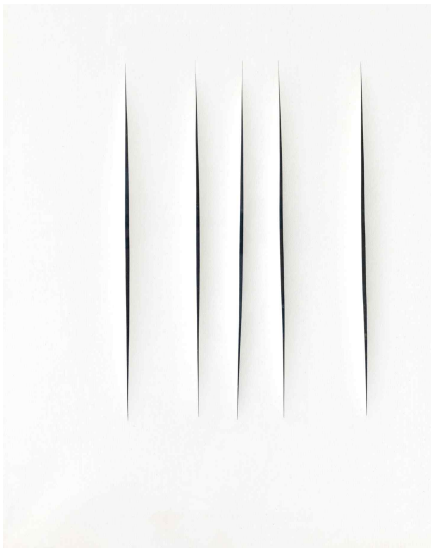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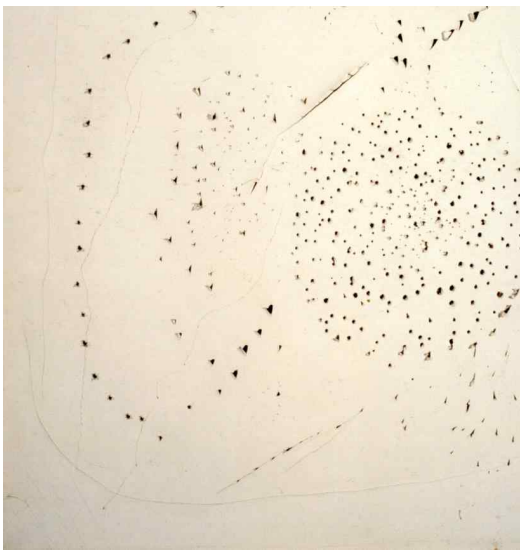
【도판 1】 사이 톰블리(Cy Twombly), Apollo and the Artist, 141.9x127.5cm, 종이에 혼합재료, 1975

루치오 폰타나의 작업에서 찾아볼 수 있는 유사성은 만년의 평면 작업이었다. 그는 'Holes series'에서 캔버스와 금속에 구멍을 뚫기도 하고 돌멩이를 붙이기도 하는 등 다양한 매체 실험을 했으며, 'Cuts series' 에서는 캔버스에 칼로 흠집을 내어 2차원의 평면을 3차원의 입체로 전환하는 접근을 하였다. 이는 더 이상 습식과 건식재료를 사용하여 그리기나 칠하기와 같은 채색법 만이 평면을 구성하는 표현 기법이 아님을 보여줄 수 있는 사례이다.[10]

10) 루치오 폰타나(Lucio Fontana, 1899~1968) 아르헨티나의 산타페 출생. 밀라노의 브레라미술학교에서 조각을 배우고, 제2차 세계대전 전에 '추상 ·창조' 그룹에 참가하였다. 전후에 밀라노에서 '공간파(空間派)'를 결성하여 공간주의운동을 일으키고 '공간을 가로질러 빛나는 형태'를 새로운 미학(美學)의 형성이라 하여, 운동 ·색채 ·시간 그리고 공간, 즉 네온의 빛 ·텔레비전 · 건축 등에서 볼 수 있는 4차원적 존재를 현대의 예술개념이라고 주장하였다. 또한 캔버스에 날카로운 칼자국을 넣은 커팅작품으로 회화와 조각의 극한으로서의 공간개념의 창조를 보여 유명해졌다. 만년에는 그림자에 관심을 가지며, 도려낸 실루엣의 그림과 같은 것으로 연작을 남겼다. (두산백과, 두산백과, 1989 (네이버지식백과사전)

본인의 작업에서 루치오 폰타나의 작품과 연결지어볼 수 있는 지점은 <Samsara> 시리즈에서 주로 사용하던 표현 기법인 평면에 흠집내기이다. 본인은 사람이 마음의 상처를 받은 모습을 표현하기 위해 화면에 직접적으로 못 자국을 내었다. 구멍을 만들어 화면을 뚫거나 긁는 표현으로 종이를 해어지거나 찢어지게 했으며, 이는 본인이 화면을 다루는 법에서 루치오 폰타나의 표현기법과 유사성을 찾아볼 수 있었다.





【도판 2】 루치오 폰타나(Lucio Fontana), CONCETTO SPAZIALE, ATTESE 73x92cm, 캔버스에 혼합재료, 1965

【도판 3】 루치오 폰타나(Lucio Fontana), CONCETTO SPAZIALE (Spatial Concept), 100x100cm, 종이에 혼합재료, 1949

본론 2-1의 <Samsara>에서는 사이 톰블리와 루치오 폰타나의 작업의 성격과 특징을 발견해볼 수 있다. 루치오 폰타나는 'Holes series'와 'Cuts series'에서 회화에서의 주된 재료와 표현 기법으로 화면을 구성하는 것이 아닌, 도구를 이용하여 캔버스에 흠집을 내며 평면을 입체로 만드는 시도를 하였다. 본인도 못을 사용하여 화면에 구멍을 내고 긁어낸 자국으로 '상처를 받은 모습 표현하기'에 좀 더 명확한 표현을 할 수 있었다. 또한 다른 재료를 사용하여 붙이거나, 덮어가거나, 다시 그리기를 불규칙적으로 반복하며 현대미술에서 이해되는 드로잉의 의의를 갖는다.

2-2의 <요람으로 쓰러지는 법>에서는 반복되어 나열된 점과 무작위로 그어진 선, 그리고 그 위로 덮어지는 물감과 그의 질감과 두께감을 나타내는 마티에르, 콜라주의 반복으로 화면을 구성해간다. 사이 톰블리의 불규칙적이고 자유로운 드로잉 기법, 물감을 덮어가며 쌓아가는 밀도와 마티에르를 활용한 페인팅 기법에서 유사성을 갖는다.

2. 본인작품해석

1) Samsara

<Samsara> 시리즈 작업의 소재와 주제는, 본인의 삶에서 가장 가까이 있었던 하나의 감정과, 그의 변화에 따른 과정을 소재로 삼게 된 시리즈다. 본인이 관심을 두고 있었던 것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 변하는 사람의 심적 상황을 시각화하는 것이었다. 작업의 시작은, 박완서 작가의 소설 <미망>[11]과 <흑과부>[12]에서 쓰인 소설어 중 하나로 '가슴에 못이 박히다'라는 표현에서 영감을 받게 되었다. 작가는 이 소설어를 '마음속 깊이 원통한 생각이 맺히다.'라는 해석을 붙인다. 이 표현은 소설 밖으로 더 나아갔을 때, 사람이 마음의 상처를 받는 모습의 은유법 중 하나로 보편적이게 쓰이고 있다.

본인은 '가슴에 못이 박히다'라는 표현에서 '못'이 '가슴'에 박히는 움직임을 발견하고, '박힘'의 움직임에 따른 결론에 집중하게 되었다. 그리고 이를 시각화하는 방법으로 나무 화판에 못을 박는 직접적인 표현을 하게 되었다. 또 다른 방법으로 상처를 내는 표현을 '긁어내기'로 나타냈다. 일상에서 날카로운 사물에 긁히거나 베였을 때 긁혀진 사람의 피부나 사물의 표면에서 영감을 얻게 된 표현이다. 종이로 덧댄 화면에 못의 날카로운 부분으로 반복적으로 긁어가면서, 못이 종이에 낸 스크레치를 중첩해 종이가 찢어지고 해어지는 이미지를 만들어 갔다.

---

11) "아이고, 이 불쌍한 것아, 몸 성하고 호의호식하고 은소반에 떠받치듯이 대접받고 살것만도 불쌍하고 불쌍해 가슴에 못이 박혔는데 중병이 들어 피접을 온다는 게 참말이냐…" 박완서, 『미망 1』, (문학사상사, 1990), p.161

12) 그 양지바르고 깨끗한 새 집에서 단 하루라도 살다가 죽었어도 내 가슴에 이렇게 못이 박히진 않았으련만. 박완서, 「흑과부」, 『배반의 여름』, (문학동네,2013), p.155

앞서 이야기한 두 가지의 방법이 상처를 내는 방법이었다면, 다음으로 고민한 부분은 시간의 지남에 따라 상처가 아물어 가는 재생의 표현이었다. 이는 못을 박아 만든 구멍과 긁어내기로 생채기를 입힌 화면을 메워가는 과정으로 나타냈다. 주재료는 말린 꽃잎이었는데, 상처로 표현한 화면 위에 꽃잎을 붙여나가며 상처가 아물고 딱지가 생겨 피부가 재생하는 모양으로 비유하였다. 꽃잎을 붙여 나가는 표현으로 피부의 '재생'을 비유한 부분은, 본인이 본 작업에서 사용한 재료 중 유일하게 생명력을 가지고 있는 재료이기 때문이었다. 생명력의 사전적 의의를 살펴보면, '생물체가 생명을 유지하여 나가는 힘', '사물이나 현상의 본질적 기능을 유지하여 나가는 힘'을 말한다. '힘'이라 는 것은 스스로 움직이거나 다른 사물을 움직이게 하고, 정지하는 것을 움직이게 함으로 본래의 상태에 변화를 야기한다. 그러므로 상처를 낸 화면 위에 꽃잎을 붙여가는 것은 꽃잎이 가진 생명력으로 상처가 아무는 모습을 의미할 수 있었고, 이는 치유의 역할로 작용하여 피부가 재생하는 표현에 타당한 설득력을 가질 수 있었다. 이를 반복적으로 이어가며 형상에 구애받지 않는 작업으로 이어나갔다.

작품의 제목인 'Samsara'는 불교에서 사용하는 '윤회'의 뜻을 의미한다. 윤회[13]는 수레바퀴가 끊임없이 구르는 것과 같이, 중생이 번뇌와 업에 의하여 삼계 육도(三界六道)의 생사 세계를 그치지 아니하고 돌고 도는 일을 말하며, 전생(轉生)·재생(再生)·유전(流轉)이라고도 한다. 본인은 삶 속에서 상처를 받는 것은 아무는 과정으로 마무리되는 것이 아니라, 그 위에 또 다른 상처는 얼마든지 반복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상황을 삶에서 마주하는 것은 일회성에 그치지 않기에, 비슷한 반복을 하는 모습을 수레바퀴가 끊임없이 구르는 모습으로 비유했고 이를 윤회, 'Samsara'라는 의미를 더했다.

13) 윤회(輪廻) 「1」 차례로 돌아감.
「2」『불교』 수레바퀴가 끊임없이 구르는 것과 같이, 중생이 번뇌와 업에 의하여 삼계 육도(三界六道)의 생사 세계를 그치지 아니하고 돌고 도는 일. ≒생사윤회, 윤전, 윤회생사, 윤회전생. (표준국어대사전)

다음 【작품 1】과 【작품 1】이 설치되어있는 【작품 2】는 <Samsara> 시리즈의 모태가 되는 작업이다. 가장 직관적인 방법으로 나무 화판에 못질하여 구멍을 낸 이 작업은, 못질로 구멍 내기를 수없이 반복하다 보면 구멍 이 집약된 부분은 나뭇결이 부서지게 된다. 이는 사람이 상처를 받는 모습인 '가슴에 못 박힌다'는 표현에서 더 나아가, '가슴이 무너진다'라는 모습을 표현하기에도 적합하였다. 【작품 2】는 【작품 1】과, 트레싱지에 한 드로잉 작업과 함께 구성하여 설치한 결과이다.

【작품 1】 Samsara Drawing1 14.8x21cm, 종이에 혼합재료, 2012

Samsara Drawing2 14.8x21cm, 종이에 혼합재료, 2012

【작품 2】 Samsara Installation Artwork, 2012

앞의 초기 작업을 시작으로 <Samsara> 시리즈를 이어나가게 되었고, 【작품 3】과 【작품 4】와 같이 작업을 확장하게 된다. 사람이 상처를 받는 모습을 구멍 내기와 긁어내기로 표현하고 시간이 지나 상처가 아무는 모습을 말린 꽃잎을 붙여가며 표현했다면, 시간의 흐름과 축적의 표현으로는 얼룩을 내는 방법을 이용했다.

【작품 3】 Samsara 60.6x72.7cm, 종이에 혼합재료, 2013

【작품 4】 Samsara, 120x120cm, 종이에 혼합재료, 2013

본인은 동양화를 공부하며 그림을 그릴 시에 고민스러웠던 지점이 있었는데, 아교 포수를 한 장지 위에 물방울을 떨어트리게 되면 시간이 지나고 얼룩으로 남는 것이었다. 이런 얼룩의 모습은 평소 커피를 마시면서도 발견할 수 있는데, 마시던 커피를 종이 위에 올려두게 되면 커피잔 밑받침의 형태로 얼룩이 지게 되는 것이다. 이 얼룩의 생김을 하나의 표현기법으로 고민해보며, 적당한 코팅이 되어있는 종이 위에 커피를 희석한 물을 얹고 말려 얼룩을 만들게 되었다. 이러한 방법으로 얼룩을 반복하여 만들어가고, 커피물의 색감과 얼룩의 모양으로 밀도를 쌓아갔다.

미색의 종이 위에 커피물로 얼룩을 쌓아가면서 종이의 빛이 바래서 변색이 되는 듯한 색감을 비슷하게 흉내 낼 수 있었고, 이는 상처가 아물어 가는 과정의 시간성을 의미할 수 있는 표현에 적합했다. 이러한 작업과정으로 완성된 작품이 【작품 3】과 【작품 4】이다.

【작품 5】는 앞의 작품들과는 다른 방식으로 시도한 작업이었다. 【작품 1】에서 【작품 4】까지 해왔던 방식에서 작업의 한계와 단점을 발견하게 되었는데, 이는 작품의 보존에 관한 문제였다. 나무 화판에 수십 개, 수백 개의 구멍을 내면 나뭇결이 부서지게 되는데, 이는 나무 화판 일부가 떨어져 나간다든지, 화판의 형태가 일그러지는 문제가 되었다. 이를 대체하기 위한 다른 표현기법을 고민하게 되었고, 이를 【작품 5】에서 시도하였다.

【작품 5】 Samsara, 24.2x33.4cm, 종이에 혼합재료, 2014

나무 화판에 못질을 하여 구멍을 내는 대신, 화판에 붙인 종이에 물을 뿌려 종이를 불리고 송곳으로 구멍을 냈다. 화판이 부서질 위험이 없기 때문에 작품을 보존성에 대한 고민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었다. 또한 <Samsara> 시리즈를 할 당시 색감을 내는 재료로 커피물을 사용하니, 비슷한 이미지를 반복하는 것에 대한 고민이 있었는데, 이에 대한 해결방안으로 【작품 5】에서는 먹물을 사용한 얼룩을 시도하기도 하였다.

<Samsara> 시리즈의 이미지에 변화를 주는 데에 한계를 느꼈던 점이라면, 동양화의 물성과 특징을 고집하는 것이 가장 큰 부분이었다. 얼룩을 내면서 색의 밀도를 쌓는 과정이 동양화의 채색법과 일맥상통하며, 이러한 표현기법은 동양화의 특징으로 설명할 수 있는 부분이기에 【작품 5】까지는 이러한 표현의 시리즈를 이어나갔다.
하지만 <Samsara> 시리즈를 발전시키기엔 재료의 한계가 있었다. 시간의 흐름과 축적을 나타내는 요소인 얼룩은 모든 물감에서 표현 가능한 기법이 아니었고, 그렇다 보니 얼룩을 내는 데에 사용할 수 있는 재료는 제한적이었다. 큰 변화를 만들지 못하고 비슷한 이미지를 생산하는 데에 한계를 느끼게 되며, 이후의 작업은 그동안 고집했던 재료와 표현 기법을 내려놓고, 새로운 재료와 그 재료가 가진 특징을 고려한 표현 기법을 연구하게 되었다.

【작품 6】, 【작품 7】 윤회하는 정원 60.6x72.7cm, 종이에 혼합재료, 2015

앞의 【작품 6】과 【작품 7】은 기존의 방법을 탈피하여 새로운 재료와 표현 기법을 시도한 작품이다. 이전에 커피물과 먹물을 사용하여 얼룩을 내고, 레이어링을 하며 밀도를 쌓아가는 것이 시간의 흐름과 축적을 표현하는 주된 표현 기법이었다.

【작품 6】과 【작품 7】에서는 이 표현기법에서 더 나아가 아크릴 물감을 맑게 섞어 종이 위에 쌓기도 하고, 불투명하고 두껍게 발라 채색하기도 했다. 종이 안으로 물감이 흡수되어 얼룩을 남기는 표현은 아니었지만, 채색을 반복하며 종이 위에 물감의 마티에르를 쌓아가는 것도 시간의 축적을 의미하는 것에 당위성이 있었다. 화면에 구멍을 내는 것 역시 변화가 있었는데, 나무 화판에 못을 박아 구멍을 내는 방법과 종이를 불려 구멍을 내는 방법의 공통된 점은 '점'의 이미지를 반복하는 것이었다. 【작품 6】과 【작품 7】에서는 이 점을 만들어내는 행위에서 그리는 행위로 바꿔 화면에 채워가기 시작했다. 또한, 이전에는 말린 꽃잎을 벚꽃잎으로만 사용했다면 이 시기부터는 벚꽃잎 외의 다른 말린 꽃잎들을 사용하여 색감의 다양성을 갖고자 하는 시도를 했던 작품들이다.

앞에서의 작품들까지는 사람이 마음의 상처를 받고 시간이 지나 그 상처가 아무는 현상에 집중하였다면, 【작품 8】과 【작품 9】, 【작품 10】에서는 이러한 현상이 내재한 스토리텔링을 접목했다.

이 작품들은 각각이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본인 혹은 타인에게 인상 깊었던 기억들을 수집하여 하나의 문장으로 정리한 뒤 추상 이미지화하는 작업으로 진행했다. 하나로 정리된 문장은 보통 작품의 제목이 되곤 했는데, 이미지는 불분명하지만, 제목으로 작품 내용을 유추해볼 수 있게 하며, 제목과 작품의 이미지와는 상반된 특징을 갖게 되었다.

【작품 8】 눈이 내리고 그 눈이 녹았던 날, 26x36cm, 종이에 혼합재료, 2016

【작품 9】 그 날, 너가 물가를 향해 던진 돌은 사실 바위였다
26x36cm, 종이에 혼합재료, 2016
【작품 10】 요즘 공기 중에 떠도는 것들, 26x36cm, 종이에 혼합재료, 2016

【작품 8】에는 미색과 무채색의 붓질에 낙서처럼 그어진 선들과 수십 개의 점이 있다. 【작품 8】의 제목은 '눈이 내리고 그 눈이 녹았던 날'인데, 눈이 내린 보통의 풍경은 새하얗지만, 그 위로 사람의 발길이 닿으면 하얀 눈길도 때가 타게 된다.

이 작품은 한 연인이 이별하는 모습에서 영감을 받아 그들의 이야기를 '눈이 내리고 그 눈이 녹았던 날'이라는 한 문장으로 비유하고 시각화하였다. 때가 탄 눈길을 표현하기 위해 회색의 붓질을 하였고, 점을 그리고 그 위로 물감을 덮기를 반복하며 심리적 상태를 나타냈다.

【작품 9】는 【작품 8】에서의 연인들이 서로에게 던졌던 말들을 받아들이는 순간을 상상해보며 표현해 본 작품이다. 이어서 【작품 10】은 연인 중 하나가 습관처럼 떠올리게 되는 그 날의 기억을 이야기했을 때, 그가 경험하는 당시의 상황을 비유하여 그려보게 되었다.

【작품 11】 생리통, 97x130,3cm, 종이에 혼합재료, 2018

【작품 12】 붉은 파도, 22.7x15.8cm, 종이에 혼합재료, 2018

앞서 언급한 작품들이 심리적 충격의 기억에 비롯한 정서적 표현이라면, 【작품 11】과 【작품 12】는 신체로 느낀 물리적인 충격이나 움직임에 의한 변화가 있는 소재로 삼았다. 두 작품은 생리통에 비롯한 작업이다. 본인이 생리통을 겪을 때 느끼는 통증은 평소 작업하는 방식과 비슷한 면모를 가졌다는 점을 발견했다.

긁힘을 당하거나 찌르는 듯한 통증, 얼얼하고 뻐근한 느낌은 본인이 화면에 행하는 행위와 닮았고, 화면에 감각기관이 있다면 긁힘과 뚫림을 당했을 때 통증으로 느끼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했다. 화면을 본인으로, 그리고 본인이 그림에서 취하는 행동은 생리통으로 역할을 나누어 보는 발상으로 그려 갔다. 【작품 11】은 이불 위에서 느꼈던 생리통을, 그리고 【작품 12】는 둑이 열리고 쏟아지는 물처럼 생리혈이 파도처럼 들이치는 모습을 표현하였다.

2) 요람으로 쓰러지는 법

‘요람으로 쓰러지는 법’ 시리즈 작업의 소재와 주제들은 일상에서 쉽게 지나치지 못하는 어떠한 순간과 떨쳐내지 못하여 기억으로 고정된 사건 사고들에 비롯한 기억의 감정들에서부터 시작된다. 이는 앞서 서론에서 언급했던 ‘일화 기억’과 ‘섬광 기억’의 성격을 가졌다. 과거의 잊지 못하는 특정 경험들을 회상하는 ‘일화 기억’과, 한 사건의 경험 세부사항까지 자세하게 오랫동안 보존되는 ‘섬광 기억’을 현재라는 시점까지 연결시킨다. 이런 경험적 사실에 관한 기억에 의한 ‘요람으로 쓰러지는 법’의 작업은 본인에게 생겨온 물리적, 심리적 충격을 주었던 상황들에 주목하게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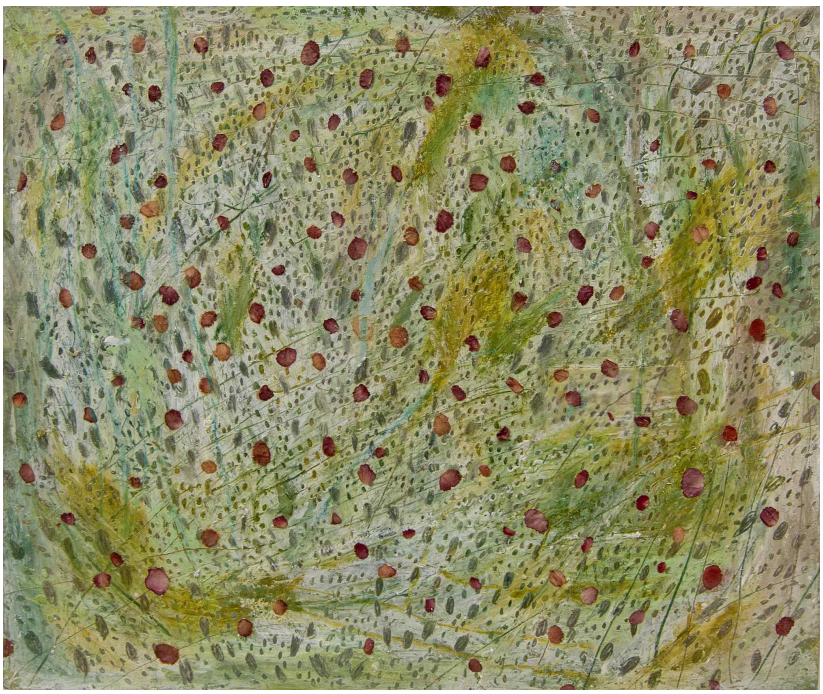
작업에서 대부분을 차지하는 주된 상황은 ‘죽음’과 비롯되었는데, 본인은 최근 몇 년 동안 주변에서 가까운 관계의 사람들이 죽음을 맞이하거나 빗겨 가는 순간을 주기적으로 마주쳤다. 작업의 발단으로 삼게 된 것은 할아버지의 갑작스러운 죽음이었는데, 가까이서 주변인의 죽음을 지켜본 것이 처음이었던 내게는 상당한 충격이었고 할아버지의 장례 이후에도 본인의 삶에 큰 여운으로 남았다. 이 여운이 가진 힘은 그 날에 비롯된 기억을 작업으로 이어가게 했다. 그림으로 남긴다는 것은 하나의 기록이기도 하지만, 당시의 상황에서의 나의 태도와 생각을 되짚어보고 이후에 갖춰야 할 것들을 찾는 자기반성의 시간이기도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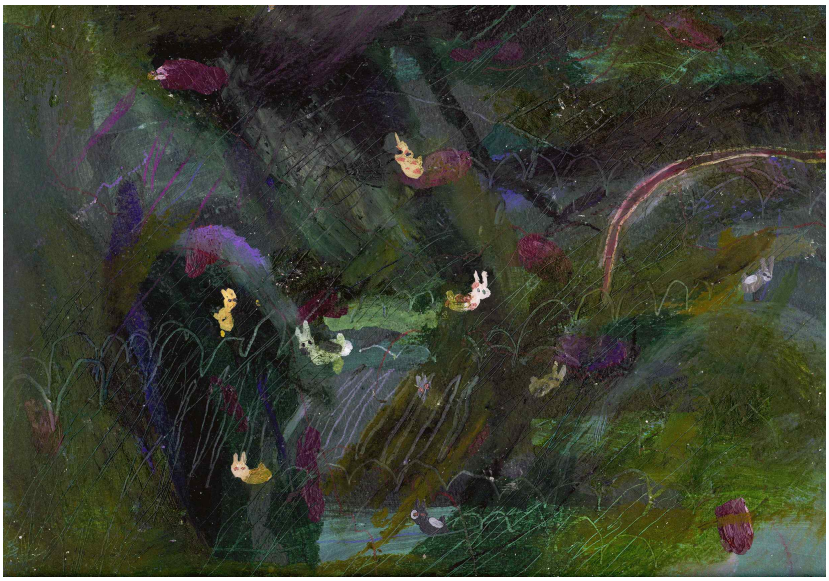
작업의 방식은 <Samsara> 시리즈에서 확장 시켜 이어나갔다. 앞선 작업과정에서 구멍을 뚫거나 점을 찍는 행위, 긁는 행위, 채색으로 덮어가는 행위에서 어떤 의미를 찾았다면, 이후의 작업에서는 행위를 통한 나의 태도와 마음가짐에서 의미를 찾게 되었다.

본인은 같은 행위를 반복하며 빈 화면을 채워가는 것이 마치 불교에서 108배를 하는 행위[14]와 닮았다고 여겼다. 불교에서 행하는 절의 의미는 타인을 위한 행위이기보다는 자기 자신을 가다듬고 바로 잡기 위한 행위이다. 이를 108번에 반복하는 것은, 자신의 마음을 다스리는 수행이기에 일 배를 할 때마다 지극한 정성을 쏟으며 진중한 태도로 임하게 된다.

본인 역시 점을 찍어가며 그림을 완성해 가는 것이 단순히 그리는 행위에 그치지 않고, 당시의 상황을 곱씹으며 깨우침을 찾아가는 과정으로 여겼다. 흐트러진 마음을 재정비하고 스스로 갖춰야 할 태도에 대한 고민을 반복하며 작업을 했던 시간이었다.

14) 한국불교대표방송BTN, 『108배의 모든 것』, (한국불교 대표방송 BTN, 2019, https://blog.naver.com/btnii)





【작품 13】 시금치죽, 45.5x37.9cm, 화판에 혼합재료, 2017

【작품 14】 상추밭 토끼, 32x24cm, 종이에 혼합재료, 2018

17년도부터 진행했던 작업 대다수는 위에서 언급했던 할아버지의 죽음에 비롯된 작업이 주를 이뤘다. 【작품 13】은 초록빛 들판에 붉은 꽃이 피어있는 풍경처럼 보이지만, 할아버지의 마지막 식사를 그린 그림이다. 할아버지의 마지막 식사는 시금치 반찬을 곁들인 식사이셨는지 의식을 잃으시기 전 토해낸 토사물은 초록빛이었다. 당시 할아버지의 마지막 모습을 기억할 수 있는 그 어떠한 것이라도 기록해야겠다는 생각으로 그렸던 그림이며, 할아버지의 죽음을 작업의 소재로 삼게 된 연작의 시작이기도 하다.

【작품 14】는 유년 시절 할아버지와의 기억을 소재로 삼았다. 어렸을 적 할아버지 댁에 가면 늘 옥상에서 놀곤 했었는데, 하루는 옥상의 상추밭에 새끼 토끼 9마리가 있었다. 처음으로 본 새끼 토끼에 신기해하며 날이 저물게 놀았던 기억이 있었는데, 토끼가 자라면서 이내 시들해져서 할아버지댁에 가기를 뜸하게 되었다. 당시는 몰랐으나 장례를 치르며 고모께서 그 날의 이야기를 얘기하시기를, 집에서 키우기 번거롭고 냄새도 많이 나는 토끼를 굳이 사다 놓으신 것은, 손주들이 토끼를 보러 한 번이라도 더 자주 놀러 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셨다고 했다. 유년 시절의 기억과, 커서 알게 된 할아버지의 진심을 곱씹으며 그리게 된 그림이 '상추밭 토끼'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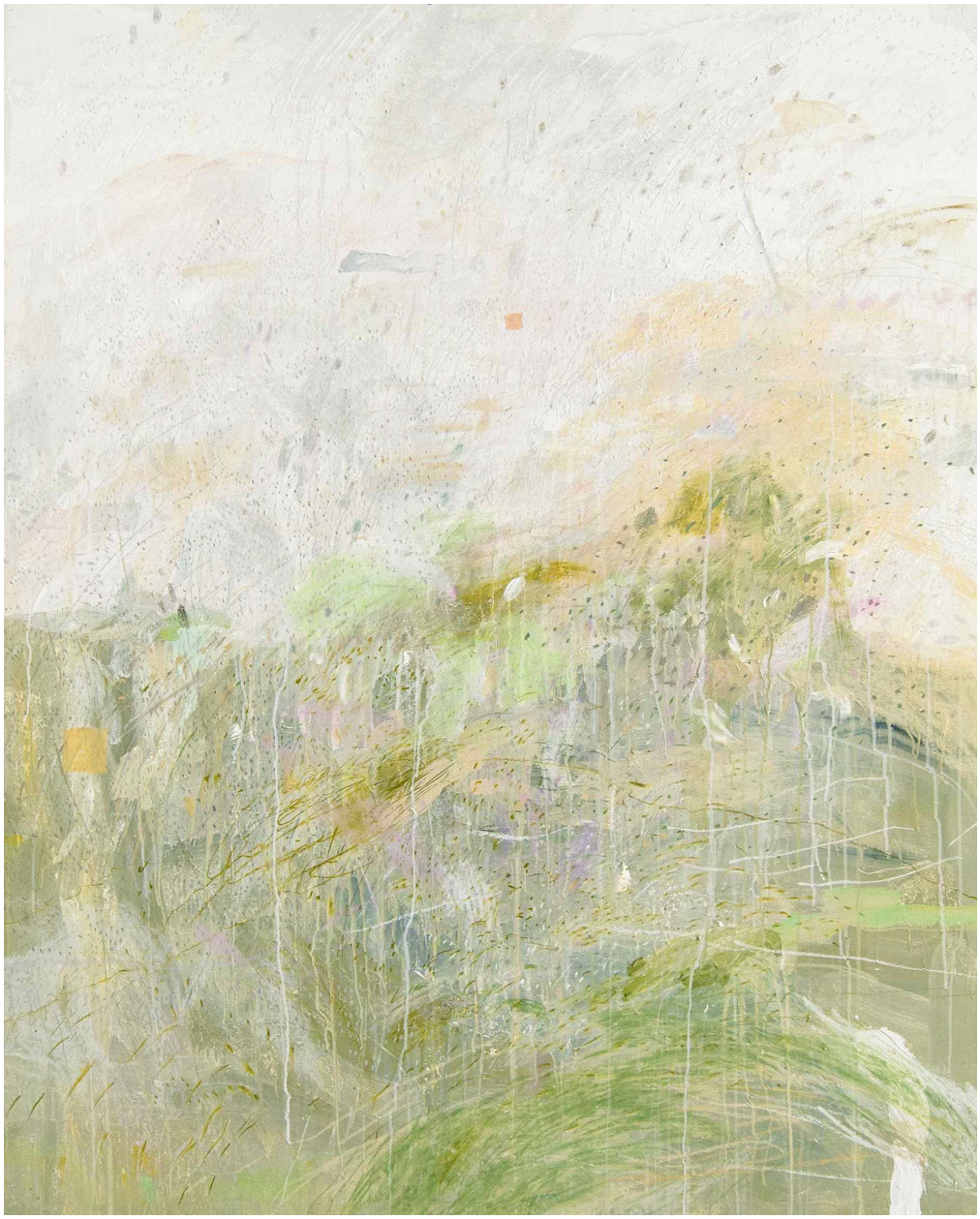
【작품 15】 무반응, 45.5x37.9cm, 화판에 혼합재료, 2017

이어서 그린 【작품 15】는 할아버지의 임종을 준비해야 한다는 연락을 받고 오랜만에 찾아뵌 할아버지의 마지막 모습이다. 화면의 가운데 자리하고 있는 덩어리 사이로 긴 호스가 관통하고, 호수에서는 액체가 흐르고 있다. 중환자실에 누워있는 할아버지는 몸 곳곳에 호스를 꽂고 약물을 투여하고 있었지만, 이미 숨을 거둔 상태였다. 그 모습은, 모든 가족이 다 모이기까지 그가 살아있는 모습으로 마지막 인사를 할 수 있기를 바라는 가족들의 바람이었다.

【작품 16】은 할아버지의 운구를 모시고 장례를 치른 선산을 그린 그림이다. 화면은 반으로 나뉘어 하늘과 땅으로 나누어 표현했는데, 당시의 흐린 날씨와

아직 봄이 채 오지 않아 파릇하다만 묘지 터의 들판, 그리고 화면 중앙에는 작은 네모가 하나 그려져 있다. 본인은 이 작업을 시작하며 네모를 사람의 마음이자, 영혼이라는 의미를 설정해놓고 작품 곳곳에 네모를 등장시켰다. 이 작업은 본인의 삶에서 쉽게 지나치거나 떨쳐내지 못하여 본인의 곁에 두게 되는 기억, 그리고 그에 비롯한 감정들에서부터 시작된다. 감정이라는 것은 마음에서 일어나는 것이고 지금까지의 작업의 기원을 따라가면 결국엔 본인의 마음에서부터 시작한 것으로 생각하여, 작품의 곳곳에 마음을 기호화하여 네모로 표시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이미 이 세상을 떠났지만, 그의 영혼이 나의 그림 언저리에서 머물고 있기를 바라며 네모에 '영혼'이라는 의미를 부여하였다.

【작품 17】은 할아버지의 장례를 마치고, 남아있는 상황들을 정리하고 재정비하는 시기를 가지며 그리게 되었다. 화면에는 슬래시(/)와 점(.)의 기호를 반복하며 빼곡하게 화면을 채우고, 화면 아래쪽에는 말린 꽃잎이 나란히 줄지어 남은 화면을 차지하고 있다. 본인은 당시의 상황이 마무리되고 잔여 감정들을 정리하면서 돌아가신 할아버지께 편지를 썼다. 그리고 이 편지를 모스부호로 변환시켜 화면에 기록했다. 보통의 모스부호는 선(−)과 점(.) 기호로 표시하지만, 선(−)을 옆으로 비틀어 슬래시(/)로 표기하였다. 마지막의 말린 꽃잎은 할아버지께 헌화한다는 생각으로, 국화잎을 말려 콜라주의 재료로 사용하게 되었다.



【작품 16】 네모가 머무는 곳, 130,3x162.2cm, 종이에 혼합재료, 201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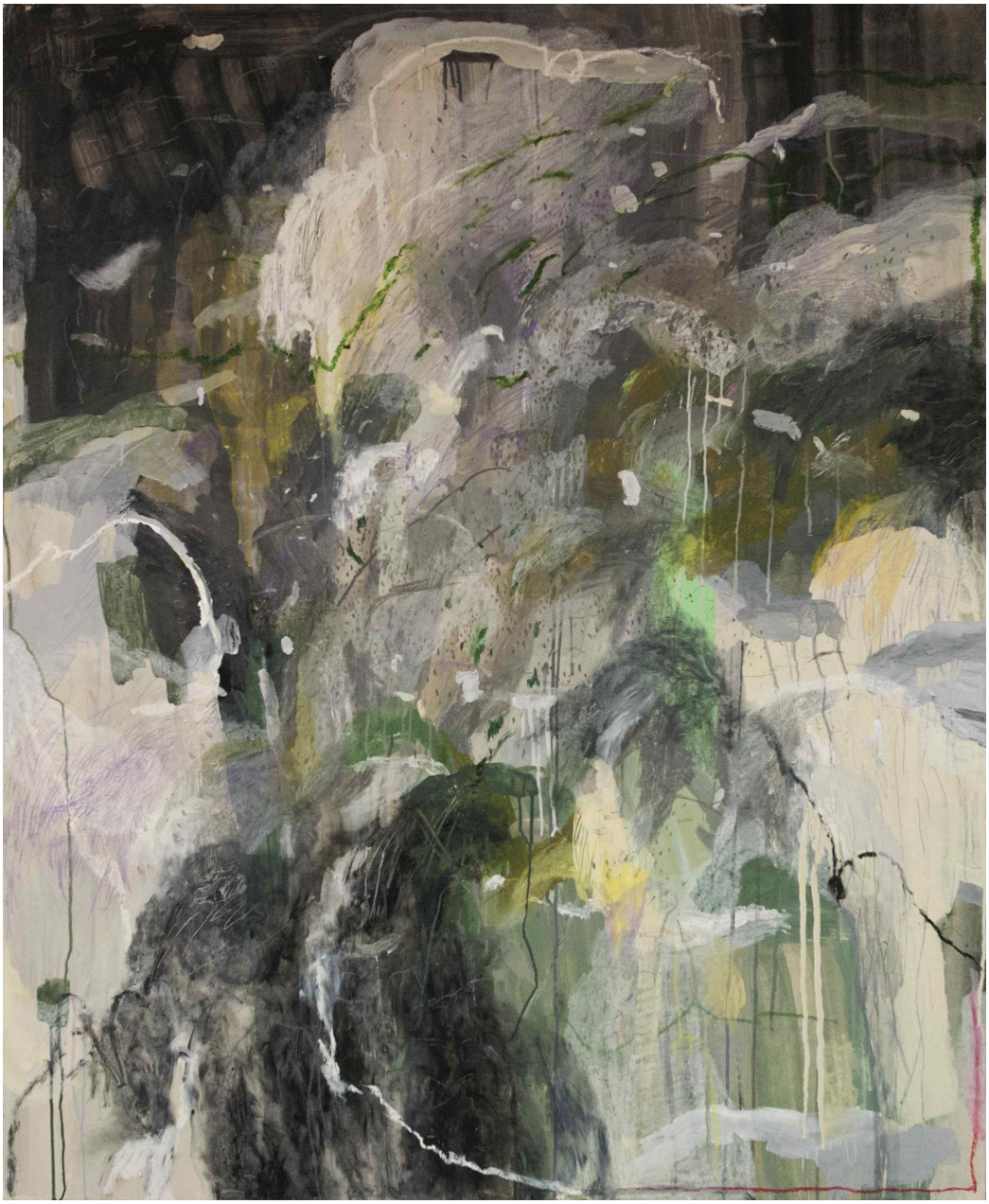
【작품 17】 액자를 마주하며, 독백, 72.7x90.9cm, 화판에 혼합재료, 2017

【작품 18】 가벼워 자꾸만 떠오르는 것들, 24x32cm, 종이에 혼합재료, 2018

이러한 기억들의 무게를 따지자면, 본인은 '무겁다'기보다는 '가볍다'라고 표현하고 있다. 불시에 떠오르는 기억은 가볍기 때문에 공기 중에 먼지처럼 떠다니거나, 물 깊은 곳으로 밀어 넣어도 수면 위로 떠오르는 것처럼 느껴졌다. 본인이 체감하는 기억의 무게는 가볍기 때문에, 머릿속에서 계속 떠오르는 것이라고 생각했다.

【작품 18】에서는 이러한 기억의 무게를 표현하고자, 바람 불면 날릴 것 같은 먼지 덩어리나 이물질 등을 화면에 등장시켰다. 공기 속에 뒤섞여 있는 것처럼 자유롭게 배치해가며, 화면 안에서 스스로의 의지로써 움직이는 게 아닌 외부에서 침투된 충격으로 움직여지는 것들을 그려갔다.

할아버지의 죽음과 비슷한 상황은 불규칙적이지만 주기적으로 찾아왔다. 한 번은 외할머니께서 수술 중 뇌사와 비슷한 상태에 빠졌던 적이 있었다. 갑작스러운 상황에 온 가족이 혼돈에 빠졌고, 그 사이에서 본인이 본 엄마의 모습은 처참했다. 그때의 엄마에게서 나의 부모 역할을 하던 자아와, 외할머니의 딸 역할을 하던 자아가 아닌 다른 자아를 발견했다. 스스로 몸과 마음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엄마의 옆에서, 그녀가 무너지지 않게 늘 지탱을 해야 했다. 이런 상태의 엄마와 스스로에게 주어진 몫은 감당하기 쉽지 않았다. 이 시기의 작업은 불안하고 피로한 심리상태를 드러내기도 하고, 본인을 달래기 위한 수단으로 작업에 몰두하기도 했다.
당시에 그린 그림이 【작품 19】와 【작품 20】이고, 두 작품의 제목은 '요람으로 쓰러지는 법'이다. 이 시기에 본인은 위독하신 외할머니, 본인에게 너무 의존적인 엄마, 이 외의 개인적인 일들 등을 한꺼번에 떠안게 되었고 심신으로 큰 무력감을 느꼈다. 하지만 본인이 할 수 있는 건 버티는 수밖에 없었다. 이 비극의 상황은 요령껏 넘어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다른 것에서 위안을 삼아 보낼 수 있는 시간도 아니었다. 무너지지 않고 버티는 것 만이 할 수 있는 것이고, 해야 하는 것이었다.



【작품 19】 요람으로 쓰러지는 법, 130,3x162.2cm, 종이에 혼합재료, 2018

【작품 20】 요람으로 쓰러지는 법, 22.7x15.8cm, 종이에 혼합재료, 2018

요람은 아기가 태어나서 엄마의 품을 떠나 찾게 되는 침대이며, 위험으로부터 보호받고 안락함을 느낄 수 있는 장소이다. 이러한 요람으로 '쓰러진다'라는 표현을 하게 되었는데, 이 시기에 나는 내게 주어진 상황에서 스스로 버티지 못하고 무너지게 된다면, 내가 쓰러질 그 주변에 요람이 있었으면 좋겠다. 고통에 투신해야만 하는 시간이어도 마음을 맡길 수 있는 곳이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왔던 것 같다.

위에서 언급했듯, 같은 것을 반복하며 그림을 그리는 행위에 본인의 정신을 고정하고 그것에 몰입하는 시간들이 유일하게 자신을 위로할 수 있는 방법이었다. 그리고 이 시기에 그리게 된 그림들의 제목이, '요람으로 쓰러지는 법'이다.

III. 결　론

본 논문은 2012년부터 2018년도까지 제작된 작품인 <Samsara> 시리즈와 <요람으로 쓰러지는 법> 시리즈를 대상으로 기억 속 이미지를 통한 심리 표현과 추상 이미지에 대한 연구와, 이를 통한 자아 형성 및 변화의 계기를 발견하고 분석한 논문이다.

<Samsara> 시리즈에서는 화면에 등장하는 표현기법과 재료에 상징적 의미를 두고 조합하면서, 시간에 따라 변하게 되는 사람의 심리상태를 형상 표현 과정에 따라 추상적 이미지로 만들어갔다. 다양한 재료가 가진 물직적 특성과 우연적 표현기법을 조합해가며 화면을 구성해갔다. 평면의 종이 화면에서 표현하는 그리거나 칠하기가 아닌 구멍내기와 긁어내기, 덧붙이기의 방법으로 밀도를 쌓는 새로운 방식의 표현이었다. 이는 늘 그리기 방식을 고집해왔던 본인에게 작업의 새로운 영역을 확장 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요람으로 쓰러지는 법> 시리즈에서는 본인의 삶에서 자기성찰 및 자기반성을 하게 되는 계기의 사건 사고들을 찾고 그것들이 가진 영향력에 집중했다. 이러한 사건 사고를 머릿속에 되뇌이며 작업의 소재로 삼는다는 것은 단순히 작업의 이야기로 다루는 것에서 그치지 않았다. 사건 당시의 본인과 현재의 본인을 대치해보며, 본인이 주체로 살고있는 삶 혹은 작업을 업으로 삼으며 살아가는 삶에서 변화하거나 갖춰야 할 태도에 대해 고민하는 시간이기도 했다.

대체로 작업으로 이어지는 기억들은 본인의 삶에서 비극적이거나 부정적인 경험으로 삶 속에 깊게 남아있었다. 하지만 이를 처음 받아들였던 순간의 감정과 느낌 그대로 남겨두며 하나의 트라우마로 여기지 않고, 본인이 어떤 원인과 동

기로 이와 같이 여기는지에 대해 바로 마주하는 계기로 만들었다. 본인은 이러한 계기를 통해 당시의 상황을 바라보고 해석하는 시야의 범위를 넓힐 수 있게 되었고, 다양한 해석과 의미에 열려있는 상태가 되었다. 지난 과거를 되돌아보며 기억을 재정비하고, 현재의 자신이 성찰과 반성을 하기까지에 도달하게 된 것이다. 본인에게 의미 되는 기억에 대해 정의를 내리는 것에 이어, 작품에서는 본인의 심리와 사유의 흐름에 따라 추상적 이미지의 형상 표현과 기법에 반영되었다.

작가로서 어떤 이야기를 할 때 가장 진솔할 수 있고 설득력 있을 수 있는지에 대해 고민을 할 때, 본인은 아직 자신의 이야기를 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본인은 그 과정 중 하나로 과거의 기억 속 이미지를 시각적인 이미지로 끌어내는 것이 있었다. 지난 과거로부터 현재까지 관통하는 미성숙하고 불안하던 자아와 그 배경에 있던 본인이 경험한 삶의 풍경을 바탕으로, 반복하는 자아탐구를 통해 반성과 성찰을 거듭하게 되었다. 기억을 이미지화 하는 작업을 통해 본인이 스스로 존재감을 지키고 작업에서는 고유성을 확립하고자 한다. 작업 안에서 솔직하고 진중한 태도로 일관한 모습을 지켜가며, 이후에도 본인이 관심을 가지고 꾸준하게 지켜볼 수 있는 또 다른 삶의 풍경에 다가서고자 한다.

참 고 문 헌

단 행 본

박완서, 『미망 1』, (문학사상사, 1990),
박완서, 「흑과부」, 『배반의 여름』, (문학동네,2013),
Daniel L. Schacter, 『심리학개론』, (시그마프레스. 2016)
Rudolf Arnhiem, 『시각적사고』, 김정오(역), (서울:이화여자대학교 출판부, 1991)

논 문

류경숙 지음, 『기억 이미지를 통한 조형표현 연구』, (성신여자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2005)
신예진 지음, 『기억에 내재된 감각적 표현연구』, (성신여자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2014)
정소윤 지음, 『기억에 내재된 감정 표현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2016)

홈페이지 및 기타

네이버지식백과
위키백과
표준국어대사전

Abstract

A Study On 'Abstract Expression' through Image in Memories
-Centering around my work-

Won, Na Rae
Department of Oriental painting
Graduate school of
Sungshin University

This study began with attention and observation about my memories from private experiences in my life, and aims to visualize abstract images using them as subjects.

Each of us has the certain attitudes, consciousness, values, and identities in life. And when we face a situation in our life, we devise interpretations and conclusions by what you have. These experiences accumulate, and sometimes the way we handle conflicts with each other and changes,so we change the way. I focused on the moments of changing my attitude and values among the fragmentary memories of life. The moment that triggers a change is not just recollection, but rather a reminder of the feelings of the time. Memories usually remain strong to my own impression so have lived as remnant or have a

profound impact over time in my life, and things like thinking, behavior, pers pective, attitude changed by memories.

Works express moments that have made a strong impression on me and indis tinct situation in an atypical image. The frame has been observed as a space for the story that has occurred through events in my works, replacing the ele ments that appear in the memories with my formative language and combinin g them indistinctly within the frame. I am not only leaving moments at work s simply, but also observing things that are related with each other organizati onally and other derived things are expanding and changing in different way s.

Based on the study of how to record memory as an image, this study aims t o discover the perception and opportunity about forming and changing my o wn ego. Understanding them as image, I am going to look back the values what I found. Also, the works of this study focus on reminding memories th at are left as strong impression in life, expressing them in atypical form. In t he process of abstract imaging, I focus on exploring the uniqueness of my w orks, finding out what each of the formative expressions and techniques mea nt, and presenting them in a sensuous and aesthetic way.